기 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51) - 이사검 묘(李思檢 墓)

지중추원사 좌찬성 양성부원군

최 종 규
포천명유회 회장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213-1에 위치한 이사검 묘(李思檢 墓)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 38호
· 소 재 지 :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213-1
· 비 고 : 이사검

이사검(李思檢)운 조선조의 무신. 본관은 陽城, 시호는 공소(恭昭), 고려의 강능도절제사(江陵道節制使) 자헌대부(資憲大夫) 정절공(靖節公) 이옥(李沃)의 아들, 벼슬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좌찬성(左贊成) 양성부원군(陽城府院君)이다.

1405년 (태종5) 무과에 급제 司直을 지내고 1408(태종 8) 양녕대군(세종)이 세자로 책봉되자, 태종의 명으로 세자전좌관(世子傳佐官)으로 보좌. 상호군(上護軍)으로 승진 후 平山에 있었다. 1409년 (세종1) 왜구로 임명되어 소수의 선박으로 유화책(宥和策)을 써서 원병을 기다리며 대치하다가 결국 적선이 물러 갔는데 싸우지 않았다 하여 옹진으로 평직된다. 이 사건 이후 대마도 정벌을 하게 된다.

묘역현황

묘 : 1기(가로 630cm, 세로 820cm)

묘비 : 2기(높이 130cm, 넓이 45cm, 두께20cm)

유명조선국자헌대부(有名朝鮮國資大夫)
지중추원사 (知中樞院事)
시공소공 이사검지묘 (諡供昭公 李思檢 墓)
유명조선국(有名朝鮮國) 이천서씨지묘(利川徐氏之墓)

무인석 : 2기(높이 190cm, 둘레 190cm)

상 석 : 2기(가로 135cm, 세로 80cm)

제주석 : 1기(가로 135cm, 세로 80cm)

호 석 : 1식(길이 210cm, 높이 30cm, 두께 18cm)

특 색 : 사각으로 돌린 호석 위에 봉분이 있으며 무인석의 투구 형태가 명황에게서 하사받은 장군모를 본 뜬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특이한 무인석임.

교육에세이 24

진정한 건강인이 되자

조 대 행
동남고등학교 교장

건강한 사람이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으며, 의식이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말 가운데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지키지 못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며, 천하를 준다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첫째, 바른 식생활은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 한다"라고 말하여, 섭생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요즘,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장속도가 급속히 가속화되므로 일생 중 가장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끼니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오래 지속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할 우려도 많고, 신체 각 기관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끼니마다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되도록 균형 있는 식사를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충분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합시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체중을 조절해 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정신 집중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데 힘쓰도록 합시다.

셋째, 흡연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중 가장 해로운 것은 흡연입니다. 보고 된 바에 의하면 근래에 와서 청소년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발육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니코틴이나 타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장기에 축적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고혈압, 뇌졸중, 폐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더 중독되기 전에 완전히 금연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만큼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고, 한 번 분노하면 그 만큼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는 심신이 건강하고 바른 인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 음악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도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공부하여 아프리카 오지로 건너가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아프리카인들을 구호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용돈을 아껴 고아원이나 양로원, 재활원 등을 찾아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역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이름만 있을 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남을 위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하는 건강인으로, 앞서 나가는 학생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정한 건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꿈과 진실 사이에서 춤을 추는 정치

박 정 근
대진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요즈음 정치와 연극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정치가들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마치 과거로 회귀하여 어두운 역사의 역할극의 한 인물처럼 행동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죽음과 구속의 악순환을 거듭했던 유신 시대의 역사극의 주인공 박 정희 대통령의 조역이라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도 그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마치 꿈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식한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 중 한 여성은 박대통령의 영애로서 그 시절의 정치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정치가 마치 대단한 영광의 시절이라도 되는 양 미화하고 있다. 또 한 대권주자는 박대통령의 업적중의 하나인 고속도로를 본 따서 전국을 운하로 엮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 요즈음 정치인들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삼류연극의 주연, 조연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관객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연극의 저열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 모두가 추억은 아름다울 뿐이라고 어설픈 유행가를 부르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물론 수많은 인권유린과 억압의 정치가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와 현재의 풍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인권유린 못지 않게 어두움의 철권통치에 몸서리를 치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 모든 억압이 단지 꿈이기를 원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염원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아무리 지금이 민주와 비민주의 양분론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운 탈냉전시대이지만 말이다.

세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1"의 서극에는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꿈과 진실의 혼돈의 연극을 보여준다. 슬라이라는 친구는 술주정뱅이로 항상 술집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자이다. 그는 술김에 깨뜨린 유리 값을 내라는 술집 여주인에게 자신의 조상이 리쳐드 정복자와 함께 조국에 공을 세웠다고 둘러대며 허풍을 친다. 그는 결국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술을 마셔댄 뒤 골아 떨어진다. 마침 사냥을 나왔던 영주가 만취되어 쓰러져있는 슬라이를 발견한다. 그는 순간적으로 슬라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는 부하들에게 슬라이를 좋은 옷을 입혀서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뒤 술이 깨면 영주님이라고 호칭하라고 명한다. 땜쟁이 주제에 갑자기 영주로 둔갑한 자신을 두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즐기려는 속셈인 것이다. 연극을 좋아하는 영주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동 하나를 영주부인으로 분장을 시켜서 가짜 영주 슬라이의 부인으로 역할을 하도록 명하여 슬라이를 십오년 동안이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가 돌아온 것으로 조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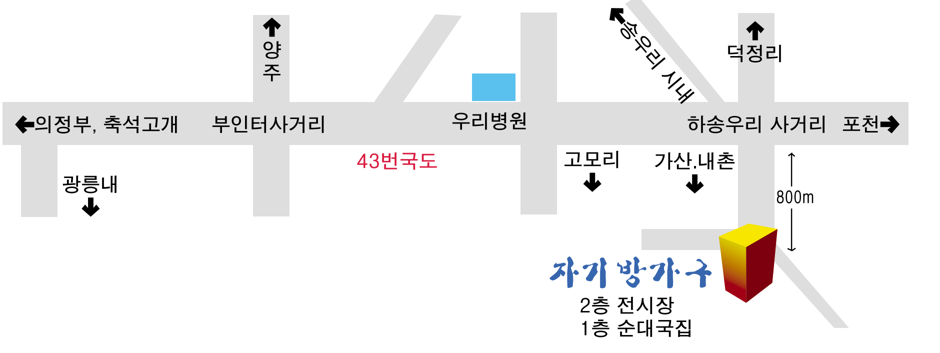
그가 부인 역할의 시동에게 주문하는 대사는 "'대감, 무슨 분부라도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셔요. 당신의 정부인이요, 조강지처인 제가, 아내된 의무를 다하여, 진정을 표시해 보여 드리려 하는 것이오니' 하고 . . . 그 눈물이란 칠년 동안이나 가련하고 더러운 거렁뱅이나 다름없이 되었으라고 생각되었던 고귀한 낭군께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것을 보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말하라 해라. 만약에 그 애가 마음대로 소낙비 같은 눈물을 쏟는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양파로서 그 가능을 대신하게 하란 말이다. 즉, 양파를 수건에 싸서 눈에다 비벼대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은 나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슬라이가 잠에서 깨어나 영주가 연출하는 각본대로 시행하였을 때, 처음에는 대감이란 호칭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으로 부인하던 그도 점점 자신이 진짜 영주라고 믿게 된다. 땜쟁이라는 실제는 십오년의 꿈 속의 내용이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되는 영주라는 현재가 실제라고 보는 것이다. 남이 억지로 쓰게 한 영주라는 마스크가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연극 속의 역할인데도 말이다. 이렇듯 연극이나 꿈 그리고 실제는 구분하기 힘들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도 꿈보다 못한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슬라이가 영주역을 하면서 가장 절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보던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난 부인과 잠자리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 또한 영주 연출의 연극인 줄 모르는 슬라이의 탈선적 연기이다.

연극은 사랑의 연기를 통해서 관객에게 실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픽션에 불과한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부인역할의 시동이 그가 오랜 병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고 달래자 '말괄량이 길들이기'란 연극을 함께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연극에 둘러싸여 있는 가를 보여주기 위해 영주 연출의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슬라이에게 또 한편의 연극을 보게 함으로써 관객에게 인생의 연극성을 철저하게 보여준다.

요즈음 정치인들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삼류연극의 주연, 조연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관객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연극의 저열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어두웠던 유신시대와 군사정권의 터널을 가까스로 나와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라는 두 개의 거친 광야와 파도가 높은 바다를 가로지르고 또 항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적어도 일제 시대에 조선 땅에 문명의 이기가 들어왔으니 그 시대가 좋다느니. 그립다고 하는 제국주의적 순응주의자들이 이제 더 이상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듯이, 개발독재시대가 경제적 성공을 했으니, 그 시대가 지금보다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았다고 평가하는 몽상주의자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전체주의적 정치에 의해서 개인적인 자유와 정의를 희생할 수 없다는 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장인정신의 혼과 멋이 담긴
골든산업 자기방가구 직영 매장

■ 본사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483
■ 매장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41-1
■ TEL : (031) 542-3393
■ H.P. : 011-292-3846 / 011-263-9148
■ http://www.jagibang.com